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 O T
ISSUE

월드컵 시즌 과연 특수를 누릴 수 있을까?

자조금 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특수 공략 필요



경기 일시 (한국시간)	대진	장소
2014. 6. 18 (수) 07:00	대한민국 vs 러시아	쿠이아바
2014. 6. 23 (월) 04:00	대한민국 vs 알제리	포르투 알레그리
2014. 6. 27 (금) 05:00	대한민국 vs 벨기에	상파울루

국제행사 특수를 전후한 닭고기 소비변화

최근 경기악화로 육계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가운데 닭고기 업계는 6월에 개최될 월드컵과 9월에 있을 아시안 게임에 사뭇 기대를 걸고 있다. 닭고기 업계는 과거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아시안 게임,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나름대로의 특수를 누렸기 때문에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닭고기는 과거 몇 마리씩 길러 잡아먹던 시대에서 닭고기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요리가 탄생하였고 이

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품으로 자리잡았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패스트푸드점이 입점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끌기 시작하였다. 당시 국내 토종 브랜드인 '페리카나'가 선두주자로 등장하였고, 이후 KFC, 파파이스, BBQ, 교촌치킨이 서로 경쟁하듯 매장을 늘려갔으며 2002년 월드컵 특수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농협의 '포레오래' 등이 가세하면서 다양한 소비의 패턴을 이끌어 오고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특수는 가까운 예를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하면서 세가지의 특수 상품이 관심에 오른 바 있다. 그것은 텔레비전, 닭고기, 축구공으로 나타났다. 당시 닭고기는 구제역으로 인한 대체소비, 여름 성수기와 겹쳐 월드컵이 개최된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36.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시 닭소비 긍정적

금년 브라질 월드컵은 대부분 새벽과 아침시간대에 개최된다는 것이 과거와는 다른 면이다. 모처럼 찾아온 호기를 어떻게 특수로 이끌어 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지난 2002년 월드컵에는 닭고기를 좋아하는 박지성 선수에게 닭요리를 전달해주는 의식을 거행하면서 소비를 이끈 '서포터즈 문화응원단 붉은닭 (Red Chicken)'이 있었는가 하면 닭고기를 사랑하는 '닭사모'가 광범위한 활동을 벌였고, 호프집이나 주점에서는 가게 내외부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해 맥주와 치킨을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었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은 240만명 층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대학생을 겨냥한 소비층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한국경기가 있는 주요 시간대를 이용하여 휴가를 내는 축구팬들도 소비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대한민국 선수들이 16강 이상의 성적을 올릴 경우에는 그 여파가 오래 가기 때문에 축구경기를 재시청하며 기쁨을 누리는 층이 많아져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년은 AI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으며, 닭고기 시장도 크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년은 날씨가 예년에 비해 일찍 더워졌다. 닭고기 소비의 좋은 신호탄인 것이다. 금년 복은 7월 18일(초복), 7월 28일(중복), 8월 7일(말복)로 10일 간격으로 걸쳐 있다. 월드컵 특수와 닭고기 시즌인 복철에만 닭소비를 기대할 수만은 없다. 연중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닭고기 자조금이다. 농가는 물론 계열사들이 서로 힘을 합쳐 자조금을 통해 우리 국산 닭고기를 지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사)대한양계협회 홍보부장 김동진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건국대학교
김진만 축산물수출연구소 소장

지난해 10월부터 건국대학교 축산물수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진만 소장은 2008년 닭고기수출연구사업단(단장 강창원)에서 연구사업을 실시하면서 닭고기와 인연을 맺었다.

5년 간 진행된 닭고기수출연구사업단은 닭고기와 닭고기 가공품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 국내 닭고기산업의 이미지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를 거듭해 왔다.

지난 2009년에는 미국에 건너가 미농무부 해외농업처(FAS)와 식품안전검사처(FSIS)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의 검역 및 위생조건을 조사하며 닭고기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의 통상조건을 위한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실이 약 5년 만에 결실을 맺어 올 하반기부터는 대미 삼계탕 수출이 가능해 졌다는 게 김진만 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시 발생으로 인해 타 국가로의 수출길이 막힌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로 인한 중국 닭고기의 수입여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로서 학업준비에도 열성적인 김진만 소장을 만나 국내 닭고기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09년 4월 23일 미국 USDA/FSIS 한·미 공동 세미나에 참석한 김진만 소장 (좌측 네번째)



수출대상국 조건 충족 및 품목 다변화 위한 지속적인 연구사업 필요

국내 삼계탕의 우수성 및 한류열풍으로 대미 삼계탕 수출 성공가능성 높아 중국 가공능가의 대형화 및 세계화로 향후 국내 산업 위협할 것으로 보여

■ 축산물수출연구소는 어떤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축산물수출연구소는 지난 4월 공식 해산한 닭고기수출연구사업단의 연구사업을 이어받으며 지난 해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닭고기 무역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변국인 러시아, 일본, 중국, 홍콩이 닭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며, 4개국의 수입량이 전체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들 4개국에 대한 닭고기 수출 기술을 개발하고 한·중 FTA 체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체, 대학의 공동연구로 닭고기 수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 통계에 의하면 닭고기 수출시장이 지난 2007년 600만 불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 닭고기수출사업단이 출범하고나서 닭고기 수출시장이 성장하며 수출액이 4,000만 불로 증가했습니다. 각국과의 FTA 체결로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닭고기수출사업단의 연구를 이어받은 축산물수출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정책부서, 수출기업, 생산자 조직을 포함한 수출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출에로 해결과 수출 증진관련 포럼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할랄인증이나 Godden Seed Project인증시스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나 산업체, 정책부서를 위한 수출정보 포털을 운영할 것입니다.

■ 최근 이슈가 된 대미 삼계탕 수출은 어느 정도 진척과정을 보이고 있는지요?

미국으로의 닭고기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등성 조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등성이란 미국의 위생(식품안전관리) 수준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써, 국내 닭고기 업계가 이 조건을 통과하면서 지난 3월 26일 우리나라의 삼계탕을 수입허용하면서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수출관련 검역·검사 지침 준수를 충족하고 수출 작업장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수출검역 증명서(부속서안)를 협의 완료해야 하며, 이는 곧 해결될 것으로 보여 5월 26일 이후 도축·가공되는 삼계탕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미 삼계탕 수출 시 주목할 점은 국내 삼계탕의 경쟁

력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삼계탕이 나오고 있으나, 국내 삼계탕에 비해 퍼석하고 감칠맛이 없다는 것이 현지 교민의 중론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미국 한인거주지인 LA 내에는 100만 명이 넘는 교민이 살고 있고, LA는 지리적으로 더운 지방이어서 보양식인 삼계탕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한 최근 한류 열풍으로 미국 내 아시안들에 대한 판매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 현재 한·중 FTA가 진행 중인, 중국 닭고기의 수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중국은 자체적으로 닭고기를 수입하는 양이 수출하는 양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농장이 대형화, 세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협동농장 형태로 몇 백만 수의 닭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은 중국 닭 사육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워낙 자국 내 소비가 많다보니 점점 더 많이 생산하고 외국의 기술이나 자본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닭고기 요리도 많이 발달해 있고 웰빙이라는 시대조류에 발 맞춰 백색육을 선호하며 중국 내 닭고기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닭고기 농장도 점점 더 거대화되고 나중에 공급과잉 상태가 되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국내 닭고기 시장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역으로 중국에 대한 닭고기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삼계탕에 포함되는 5년 이하 인삼을 보건식품에서 일반식품으로 분류함에 따라 대중국 삼계탕 수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삼계탕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민관이 합동하여 중국 수출길을 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닭고기 수출연구사업은 수출대상국가 검역·위생조건을 준수하고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사업을 토대로 연구기관, 정부, 닭고기관련협회, 계열화사업자, 농가 모두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는 곧 수입개방화 시대에 맞서 닭고기산업을 발전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H O T
ISSUE

0 0 2

“FTA에 맞서 닭고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하자”

각 단체, FTA 토론회 통해 즉각·상시 대응 위한 태스크포스팀 운영 필요 공감

축산강국과의 잇따른 FTA에 대응하여 국내 가금산업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 5월 9일 안성팜랜드에서는 ‘FTA 관련 가금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중구 축산경영과장, (사)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과 이홍재 부회장, (사)한국계육협회 김한웅 상무,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부회장 등 각 단체 관계자들과 계열화사업자 및 농민 관계자들이 참석해 닭고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중구 축산경영과장은 “앞으로 영연방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FTA체결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가금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실화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사)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은 “가금발전을 위해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현재 정책금리가 일반시중금리와 큰 차이 없이 3% 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책금리자금이 농가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닭고기, 계란, 오리 분야에 대한 분임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그중 닭고기 분야 분임토론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FTA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열화사업의 올바른 정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모든 토론자들의 공감이 형성되었다. 육계산업은 계열화사업이 95%가 진행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계열화사업자는 닭고기소비가 지난해 0.9% 감소한 이후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가공마진도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에서도 계열화사업자의 과잉생산으로 농가들의 사육회전수는 줄고 있으며 사육비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따라서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닭고기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사)대한양계협회 측에서는 수입육을 억제시키고(공격적 대책) 소비시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방어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계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설개선, 백신, 질병검사의 확대 등을 통해서 중계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가의 경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계분의 연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사)한국계육협회 측에서는 도계장의 전기를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변경하여 전기료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닭고기관련인증 기관을 통일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무항생제, 친환경, HCAAP 인증은 내용이 70%정도 동일하므로 이를 주관하는 기관을 통합해 운영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AI 등으로 창고에 비축해 놓은 냉동닭을 팔 수 없는 실정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측에서는 우리 종자(PL)를 보유한 토종닭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사업과 지원사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토종닭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계열화사업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규모 도계장을 육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 농협중앙회와는 별도로 계열화사업자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일반 협동조합을 활성화해야 하며, 부분육 생산에 유리한 대형닭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유용했다는 것에 공감하며, 이런 협의체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상시논의가 가능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닭고기관련단체 건의사항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가축분뇨, 폐사축, 부화중지란 처리시설 지원 필요	삼계탕 수출활성화를위해 물류비 보조금 증액 필요	종자중복보전(3개소 이상) 사업비 지원 등 육종개선 지원
계열사의 직영(육계, 중계)농장 설립 제한	지자체별로 무분별한 가축사육제한거리의 조정 필요	산닭판매 활성화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원종계와 중계장이 연계된 쿼터제로 적정사육수수 지속 유지 필요	농가의 시설개선 지원요청(리모델링 및 신축농장 지원, 깔짚비 절감을 위한 하우스키퍼 지원, 가스난방기 수입규제 해제)	차별화된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육성 품목 지정 및 정책지원(물류비, 포장비, 수출인센티브) 확대 요청
수입육 억제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적극 강구	도계장의 전기료 분류를 농업용으로 변경 요청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및 지원사업 강화
중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 필요 (시설개선, 백신, 질병검사의 확대 등)	축산관련인증(항생제, 친환경, HACCP) 기관 하나로 통일	소규모 도계장 육성
계분의 연료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산 냉동닭 규제 완화	

AI로 인해 치킨호프 전문점 인기 주춤



AI 여파로 치맥점포 권리금이 줄어든 반면, 별크대의 인기로 치킨매달점 권리금은 상승했다

점포라인, 치맥점포 올해 1분기 평균 권리금 31.56% 감소 발표

AI로 인해 치킨전문점의 인기가 주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창업지원자들에게 인기는 치킨전문점의 권리금이 AI 발생으로 인해 올해 1분기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매장에서 주류와 치킨을 함께 파는

점포의 경우 평균 권리금이 30% 이상 떨어져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인 점포라인에 따르면, 치킨호프 점포의 평균권리금은 지난해 4분기 1억 9,581만원으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올해 1분기 들어서는 1억 3,402만원으로 31.56%(6,179만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월 말부터 AI 발생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며 모임장소로 선택되는 빈도수가 급락해서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점포라인은 밝혔다.

반면 배달 판매 위주인 치킨전문점은 지난 4분기에 평균권리금이 6,719만원이었으며 올해 1분기에는 7,108만원으

로 올라 5.79%(390만원)의 상승효과가 있었다. 점포라인은 치킨 배달 전문점이 치킨호프 점포와 달리 소폭이나마 권리금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올해 1분기에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별크대’와 ‘소치 동계올림픽’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유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적어도 안방에서는 드라마와 올림픽 이슈가 AI로 인한 치킨의 소비 감소 요인을 이겨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개최될 월드컵(6월 13일~7월 14일)과 아시안게임(9월 19일~10월 4일)에는 AI를 극복하고 치킨을 비롯한 닭고기 소비경기가 살아나길 기원한다.

H O T
ISSUE

0 0 3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 가입 통해 닭 폐사 대비 필요

작년에 폭염피해 보상금으로 524농가 44억 5천만 원 지급받아



AI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 22~25℃보다 높지만, 강수량은 평년 501~900mm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가축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닭의 폐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닭사육 농가가 2012년에는 가축재해보험에 2,177농가가 가입했으며 이 중 1,420농가가 폭염특약에 가입해 65.2%의 가입률을 나타냈

고 있다. 2013년에는 가축재해보험에 2,590농가가 가입해 이 중 2,265농가가 폭염특약에 가입해 87.5%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과 폭염특약의 가입자수가 늘어난 데에는 가축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농협손보의 폭염특약(닭) 보상금 지급액을 보면 2012년에는 184농가 17억 5천만 원(가구당 평균 951만원), 2013년에는 524농가 44억 5천만 원(가구당 평균 849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폭염특약 가입농가의 증가분(약 1.5배)에 비해 보상농가의 증가분(약 2.5배)이 월등히 높은 데에는

작년 여름철에 폭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태풍도 거의 없었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AI 발생 및 세월호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므로,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폭염피해를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가축재해보험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한 마리당 1,500원을 기준으로 가입하는데 이를 상향하여 2,500~3,000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시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의: 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팀
02-3786-7814

“우리 고유의 토종닭 산닭시장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토종닭협회, 산닭시장 활성화 및 소형 도계장 설립 요청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가 산

닭시장의 합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산닭시장은 옛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이자 후대에 물려줘야 할 전통임을 강조하며, 동의보감에도 나온 보양식의 대명

사인 토종닭 산닭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불량식품 단속을 근거로 전통시장의 산닭시장을 불법으로 규정해 영세 산닭상인들을 단속하며 영세 산닭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산닭시장을 활성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 유지보존을 위한 대국민서명'을 받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산닭시장 활성화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에서는 모든 닭은 대형 도계장에서만 도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토종닭 산닭상인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토종닭을 몇 백km 밖에 위치한 도계장으로 옮겨 도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형 도계장에서는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토종닭의 도계를 등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는 계열화사업자 중심의 대형 도계장을 대체할 수 있는 소형 도계장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온 토종닭의 판매경로가 활성화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토종닭 종사자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찾아주길 바란다.

농진청, 양파껍질 활용한 사료첨가제 기술 제시

양파껍질에 많은 케르세틴으로 닭의 생산성과 면역력, 닭고기 저장성 향상 기대

양파껍질을 이용해 닭의 생산성과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20일 양파껍질에 많은 케르세틴(Quercetin)을 이용한 사료첨가제로 닭의 생산성과 면역력, 닭고기의 저장성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케르세틴 함유 첨가제로 실험한 결과, 5주간 케르세틴 함유 첨가제를 사료에 0.1%(케르세틴 함량: 사료 1kg 당 10mg 수준) 비율로 섞

어 먹은 육계는 항생제를 넣지 않고 급여했을 때보다 몸무게는 5.0% 늘었고, 체중이 1kg이 느는데 필요한 사료섭취량은 5.2% 줄었다고 전했다. 또한 혈액 내 총 황산화력은 13.4% 증가했고, 간과 신장의 손상 지표인 아미노전이효소 AST, ALT 역시 각각 14.6%, 13.0%씩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닭고기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질과산화수는 18.2%, 휘발성 염기질소는 22.4% 줄어 닭고기를 냉장보관할 때 산화나 단백질의 변성으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농진청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케르세틴이 함유된 사료첨가제를 육계 사료에 넣어 급여할 경우 생산성이 높아져 닭 한 마리당 수익이 9.7%(137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농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유용물질 연구 결과 지난 2009년 케르세틴을 추출 분리해 사료첨가제를 개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양파와 양파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은 가공 부산물의 원활한 수급이 어렵고 닭에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그

동안 현장 보급과 산업화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로 아직 안정적인 수급은 어려운 상황이나, 육계의 성장단계별 케르세틴의 효과가 나온 만큼 조만간 현장 보급과 산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영양생리팀 김재환 과장은 “케르세틴과 같은 농식품 부산물 유래 유용물질의 활용을 통해 자원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양계농가에는 생산성 개선과 무항생제의 안전한 닭고기 생산으로 수익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양파가격이 폭락하면서 적절한 수급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닭 도축검사 공영화를 지방재정 확보의 계기로 삼으려는 지자체를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법 개정 당시 약속한 도축검사 수수료 이행하라!

1. 우리 가금관련단체는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를 지방재정 확보의 기회로 삼으려는 지자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심히 개탄하는 바이다.
2. 지난 '13년 도축장의 도계 및 계육 검사를 종전 책임수이사에서 지방 공무원 검사관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를 개정하였다.
법 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재의 책임수이사 고용비용 수준에서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하였다.
* 마리당 가격 대비 수수료 비율 : 소 약 0.03%, 돼지 약 0.14% 적용 시 예상 검사수수료 닭 약 4원
3. 당시 가금 업계에서는 검사제도의 변경으로 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가금 산물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이를 감수하고 수용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도축검사 수수료 결정기관인 시·도에서 일방적인 산출근거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특히 법안 개정 당시 약속했던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지방재정 확보 차원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 전북(닭 5원), 경기(닭 7원), 충북(닭 7원), 경북(닭 10원), 충남(닭 10원)
4.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은 고스란히 생산 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가격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는 물가안정을 주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FTA, TPP 등 시장 개방화 속에 수입닭고기와의 가격경쟁에서 뒤쳐져 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킬 것이 분명하다.
특히 AI로 양계 산업 전반에 걸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축검사 수수료 증가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관련 농가 및 업계를 사지로 내모는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5. 가금관련 단체는 닭 도축검사 공영화를 지방재정 확보의 계기로 삼으려는 지자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가금류 사육농가와 업계는 감언이설로 속여 넘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자체는 당장 도축검사 수수료를 타 축종과 형평성 있는 공정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가금류 검사 제도를 미국, EU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스펙터 제도」를 도입해 주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원안대로 도축검사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관련 단체는 물론 모든 축산단체와 연대하여 해당 지자체 장의 퇴진 운동에 앞장서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5월

(사)대한양계협회 · (사)한국계육협회 · (사)한국토종닭협회



육계질병가이드 / 최근 IB 변화양상

IB 발생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성감정 결과를 올리는 족족, IB 바이러스가 분리된다는 현장 수의사의 푸념까지 나올 정도이니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도 별 발생상황을 보면 '90년대 이후 주로 문제가 되었던 신장형 IB(KM91타입)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위세가 줄고 대신 새로운 신장형 IB(Qx타입)가 유입됨에 따라 2003년 이후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폐사율은 발병일령이나 계군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적게는 5%에서 많은 경우 20%이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신장형 IB 발생의 양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장의 종대, 요산침착증, 설사 증세가 강하게 보여서 쉽게 신장형 IB로 진단할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호흡기 증상과 2차적인 대장균증이 예전보다 더 길고 강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은 호흡기 증상이 강하게 보인다고 호흡기형 IB는 아니라는 것이며, 호흡기 증상이 예전보다 강해진 신장형 IB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신장형 IB는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특징 때문에 '신장형'으로 불리게되었지만 실제로 호흡기, 신장 양쪽에 걸쳐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장형 IB의 유전적 변이가 가져온 변화일 가능성, 신장형 IB 백신 사용으로 신장 병변이 줄었을 가능성,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가 2000년 이후 발병한 IB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필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IB의 형태는 Qx형 신장형과 Qx-KM91형 재조합 신장형 두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IB의 발생양상이 변화하였음에도 신장형 IB백신 사용은 효과적입니다. 다만 IB의 특성상, 100% 방어가 어려우므로 폐사율을 낮춘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IB 발병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부화장, 농장 2회에 걸친 백신 접종을 통해 방어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powerseeker@hanmail.net로 문의해주세요.

(제공 : 고려비엔피 정윤석)

(주)참프레, '3 in 1', '2 in 1' 상품 판매 중



(주)참프레는 지난 3월 6일과 13일에 가슴살, 안심, 정육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명 '3 in 1'과 토종닭과 육계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명 '2 in 1'을 출시하여 전국 롯데마트와 롯데빅마켓에 입점 판매를 시작했다.

(주)참프레는 한 번의 선택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고 한다. '2 in 1'은 한 트레이를 2구역으로 구분하여 토종닭과 육계를 한

번에 판매하는 제품으로 1,100g의 복음탕용으로 출시하였으며, '3 in 1'은 한 트레이를 3구역으로 구분하여 가슴살, 안심, 정육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600g 셀러드용으로 출시하였다.

또한 (주)참프레는 제품의 표지에 나타나 있듯이, 두 제품을 통해 동물복지를 추구하였다. 닭이 가실신 상태로 도계되는 CAS 시스템과 세계 최장거리 공기냉각 시스템, 지게차 없이 로봇에 의한 분류, 적재, 이송이 가능한 폴오토시스템 등을 도식화한 참프레 인증마크를 도입하여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도 했다.

(주)참프레 관계자는 "이 두 제품은 신선함은 물론 '둘 중에 고민될 때', '셋 중에 고민될 때' 상품기획 슬로건에서 보여주듯이 한 번의 선택으로 다양한 종류의 닭고기 부위를 맛볼 수 있어 맛과 실용성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사)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이번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는 계열화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회원자격 취득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언종 전 위원장에게 감사패 전달

본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연진희)는 지난 5월 14일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15대, 16대, 17대, 19대 종계부화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언종 전 위원장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언종 전 위원장은 "양계협회에서 감사패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고

마음을 표시했고, "앞으로도 협회 및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힘껏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위원회가 농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계열사와의 대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본회 회원자격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APPC(아태가금학회) 현지시찰



APPC(아태가금학회) 현지시찰단

농가프로그램 등 구체화

본회 김동진 부장은 제 10차 APPC(아태가금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5~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방문하여 농가프로그램 구상은 물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돌아왔다.

APPC(아태가금학회) 학술대회는 오는 10월 19~23일 제주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학자 및 농가 2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부스설치 업체들은 개최장소에 만족을

표하고 성공적인 학회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특히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농가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2박 3일 코스로 하되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키로 하고, AI 예방과 관련하여 질병세미나와 후계자육성 프로그램도 참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농가들을 위해 참가비도 대폭 할인한 가격인 8만원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각종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전북대학교 양계산학협력단과 MOU



국내 양계산업 질적 성장 위해 협약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와 전북대학교 양계산학협력단(단장 류경선)은 지난 5월 14일 새로운 양계산업 시대를 만들고 혁신적인 기술로 국내 양계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다.

전북대학교 양계산학협력단은 양계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자문 및 경영컨설팅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본회와 전북대학교 양계산학협력단은 융복합기술을 활용하여 양계산업 성장을 위해 관련 정보와 업무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육계분과위원회

2014년 추진과제 논의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14일 대전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2014년 육계분과위원회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생산자 단체의 정의, 표준평가 방법 개

발, 계열화법 개정, 농가협의회 활성화 대책, 사육총량제, 수입육 대책, 가격결정구조 등 2014년 육계분과위원회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있었다. 또한, AI 방역추진 상황과 무허가축사 개선 관련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사)한국계육협회



'월간 닭고기' 발전방안 회의 개최



'월간 닭고기' 편집위원들은 발행 현황 및 개편 기획안을 듣고 향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월간 닭고기 개편에 관한 자유토론

본회는 지난 4월 24일 경기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회원사 홍보팀장과 월간 닭고기 편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간 닭고기' 발전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과 홍보팀장들은 월간 닭고기 발행 현황 및 개편 기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유토론을 통해 월간 닭고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제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시·도에서 법안 개정 당시보다 도축검사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닭도축검사 수수료 조례 제정 관련 대응 등 논의

본회는 지난 4월 21일 경기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계육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최근 닭·오리 도축검사 수수료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도축검사 수수료 결정기관인 시·도에서 일방적인 산출근거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특히 법안 개정 당시 약속했던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함에 따라 본회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재의 책임수익사 고용비용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행 AI 방역 SOP에는 발생농장 500m 이내 가금류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3km 내에서 살처분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해 대부분 3km 이내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인바 현행 규정에 따라 AI 발생농장 500m 이내의 가금류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AI 방역 SOP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 소비촉진 행사추진



대형마트에서 진행된 토종닭 소비촉진행사 모습

본 협회는 토종닭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각 계열사에 공문에 보내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농협 등)에서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하였다.

토종닭 소비촉진을 위해 개최되는 이 행사는 토종닭 할인행사와 일부 매장에서 소비홍보를 위한 시식회로 개최된다.

한편,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의 AI 발생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6월 4일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성수기를 앞두고도

토종닭소비의 둔화로 이어져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협회는 토종닭 소비·홍보를 위하여 토종닭의 다양한 요리를 담은 요리 책자를 소비자에게 나누어 주고 각종 시식행사를 통해 우리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대형마트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우수한 우리토종닭 할인행사와 더불어 토종닭의 우수한 맛을 홍보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2014년 정기총회 서면결의 결과

2013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산 승인, 201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본 협회는 AI종식이 늦어짐에 따라 이 사회의 승인으로 2014년 정기총회는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4월 11일(금) ~ 4월 30일(수)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의원 52명중 32명 승인으로 2013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산 승인과 201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안)되었다.

기타의견으로는 토종닭자조금 신설, 산 닭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 AI 차단방역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사업 마련, 토종닭 시세안정 등 안정화 방안 마련, 토종닭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협회는 위 의견들을 반영하여 토종닭 산업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AI 발생농가 사후관리 점검 실시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H5N8) 발생 이후 가금관련 단체들은 정부지침에 따라 AI 빠른 종식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4월 23일 이후 신고건은 15일 동안 없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AI 발생농가 살처분 이후 잔존물에 대한 전과 위험성에 따라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양계협회는 지난 5월 15일 경북 경주와 5월 16일 경남 하동에서 AI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토종닭협회·농협중앙회·지자체는 지난 5월 16일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농가 및 취약농가 대상으로 AI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추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악취 등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매몰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AI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다.

치맥열풍 이어가는 대구치맥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올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전망이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배달음식의 제약 치킨과 여름하면 생각하는 시원한 맥주가 조화를 이룬 치맥 축제가 오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내 야구장과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치맥 축제는 가금관련 단체들을 비롯한, 팥땅치킨, 호식이 두마리, 별별치킨 등 대구에서 전국 브랜드로 성장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등 50여 개 업체가 150여 개

부스를 설치하고 치맥 매니아를 맞이한다. 이번 축제의 관람객은 약 40만 명이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치맥축제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지난해 현장에서 성인인증하던 것을 축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무료 치킨과 맥주 부스를 더 많은 곳에 설치해 관람객들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축제공간도 두류공원 야구장 뿐만 아니라 야외음악당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므로 지난해보다 알찬 축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유자 소스를 곁들인 수삼 갈라틴

갈라틴은 닭고기의 뼈를 제거한 다음 넓게 펴서 채소나 생크림 등을 넣고 봉해서 찌내는 요리다. 본 요리는 닭에 어울리는 수삼을 이용하여 영양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유자소스와 고구마무스를 통해 한식과 양식의 조합을 이루었다.

재료 닭 1마리, 수삼 2뿌리, 고구마 1개, 파프리카(노랑, 빨강) 2개, 유자청, 깻잎 6장, 베이비 채소, 식용꽃잎, 당근 1/3개, 감자 1/3개, 올리브유, 소금, 후추, 생크림, 베이컨

Cooking

1. 닭은 모든 뼈와 가슴살, 안심, 다리살을 잘라내고 나머지는 넓게 고루 펴주고 소금 후추간을 한다.
2. 떼어낸 살은 믹서기에 생크림과 계란 흰자만을 넣고 간다.
3. 파프리카와 베이컨은 잘게 다지고 수삼은 깨끗이 씻은 후 꿀에 절여준다.
4. 고구마의 1/2은 찜통에서 찌주고, 당근, 감자, 남은 고구마는 럭비공 모양으로 깎아 끓는 물에서 데치고 베이비채소는 깨끗이 씻어 준비한다.
5. 삶은 고구마를 으개서 생크림과 설탕을 넣어 섞어 준다.
6. 같은 닭고기에 다진 파프리카와 베이컨을 넣어 고루 섞어주며 소금 간을 한다.
7. 넓게 편 닭 위에 깻잎을 깔고 섞은 닭고기를 고루 펴주고 꿀에 절인 수삼을 중앙에 올리고 랩을 씌어 모양을 잡아 말아 준다.
8. 말은 닭고기를 끓는 물에 30분 정도 삶고 다 삶아진 고기를 버터를 두른 팬에 살짝 구워낸다.
9. 냄비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유자청과 물을 넣고 걸쭉하게 만든다.
10. 버터에 구운 닭고기를 어슷 썰어 둥근 접시에 겹쳐 원모양으로 겹쳐 놓고 그 빈 공간에 감자, 당근, 고구마와 베이비채소를 놓는다. 으갠 고구마는 찹주머니에 넣어 탐모양으로 자주고 마지막으로 유자소스를 가장자리에 길게 뿌려준다.



자료제공 : (사)대한양계협회

퀴즈 낱말맞추기

1		12		13	
		11	10		
2	3				
			9	8	
4		5		7	
		6			

◇ 가로풀이 ✨ ✨

1. 미리 녹음하거나 녹화한 것을 재생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송
2. 규정된 기한이 차거나 질병 또는 집안 사정으로 현역에서 해제하는
4. 배관 일을 하는 기술자
6. 약물을 담는 탕기
7.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9. 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닭
11. 남편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 세로풀이

1. 유해 미생물에 대한 저항성 증진을 통한 가축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가축에 급여하기 위한 살아있는 젖산균
3.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무를 처리하는 기관
4. 연극이나 영화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로 분장하여 연기를 하는 사람
5.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8. 닭의 살코기
10. 시집갈 나이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12. 공덕을 기리는 시. 서정적 시가 문학의 형태
13. 단체를 구성하는 일원

72호 정답

	ㄱ	음	ㅈ		古
음	ㄷ		운	근	匪
	ㅊ	ㅁ	ㅂ		
		ㄷ	ㅈ		匪
ㅂ	ㅁ	ㅈ	ㅂ		곤
	品		琴	音	韻



양계
비법전수

여름철 사료의 저장과 품질관리 방법은?

양계를 포함한 모든 축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비이다. 즉 아무리 사육기술이 우수하고 좋은 환경조건을 제공하여도 사료의 저장이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결코 좋은 사육성과를 얻을 수 없다.

특히 여름철에는 외기온도나 습도

가 높아 조금만 부주의하면 사료를 저장 보관 중 변질 또는 부패 등으로 질과 양적인 면에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사료는 낮은 온도에 보관하며, 수분 13% 이하의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도록 하며, 금속성 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고, 특히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

을 경우에 사료를 많이 쌓아두면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압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쥐나 곤충의 침입을 막아 양적인 손실을 방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AI 차단방역 철저

AI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